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3월 4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행18장 5-11절

설교제목 :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선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마1:21)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요1:12)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교리적 개념입니다. 이러한 교리 즉 신학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참된 신학적 진리를 밝히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바른 교리와 신학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리와 신학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위한 교리와 신학을 순교적 각오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된 성경적 교리를 희석시켰습니다. 회심과 교회의 교리를 얼마나 희석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실용적 가치를 가져왔습니다. 목회가 성경적 기초대신에 실용주의 전염병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현재 시대에 통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목회의 방법론과 신학을 분리시켜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와 신학은 다르다’**. 가장 악하고, 무지한 말입니다.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신학과 교리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바른 신학의 정확성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성경적 교리를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신학적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답을 오늘 본문이 제공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되자, 바울은 자신의 옷을 털었습니다.(6절) **눅9:5**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시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먼지를 떨어뜨리는 것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부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받더라고, 그것은 바울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자신의 말을 끝맺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바울이 유대인에게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유대인에게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행18:19) 따라서, 유대인에게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것은 유대인들과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반대에도 신경쓰지 않고, 더욱 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주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가 말한대로,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 로마인의 집으로 복음 전도의 거점을 옮겼습니다. 그 결과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7-8절)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

스도라는 고백은 반드시 복음 선포의 열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마치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옷을 털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적대적인 상황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항상 복음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적대적인 상황에 신경쓰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복음전도에 더욱 힘을 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더욱 희생적인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결코 접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가령, 터키의 경우 인구가 8천만 명인데, 이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약 5천명입니다. 터키는 교회가 거의 없고, 복음을 접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가시적으로 전해주고,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선포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도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열방이 구원의 복음, 즉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십니다. **9-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복음에 적대적인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결코 복음의 불모지를 두고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약속은 ‘안전’이 아니라, ‘염려없음’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대적함이나 해로움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도 대적함이나 해롭게 할 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적과 해로움과 고난이 생겨도, 너희는 여전히 내 손 안에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십시오. 복음을 입으로 선포하시고,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은 반드시 복음 선포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말씀 나누어보기

- 1) 바울은 유대인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되자, 바울은 자신의 옷을 털었습니다.(6절)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2)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참된 신학적 진리를 밝히 증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반드시 바른 교리와 신학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교리와 신학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반드시 복음 선포의 열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